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3호 【루계 제25186호】 주체105(2016)년 2월 12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어린이가방들에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바라는 조선식의 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치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학생교복천을 비롯한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조선인민에게 락관을 안겨주는 동음소리이며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동음소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맞이하게 맞이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세네갈신문 《러 쏘뵬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 루》와 기네방송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1일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혁명의 대전당,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정치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이 땅의 후손만대를 위한 승리와 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체의 우주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의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새로 연구개발한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함으로써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음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마음속으로 아뢰이였다.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한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기세드높이 우주정복의 대통로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마자르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틈르메르 졸타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수도와 지방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가 1월 30일 브라찌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협회 위원장인 슬로벤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완 드락슬레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노르웨이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다그 노름이, 부위원장으로 외스트폴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리따 베르게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일 로씨야 나호드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 겔레노브와 비서 체르니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쓰르비아준비위원회가 1일 베오그라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국제비서 마리안 꾸비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팜보스가, 부위원장들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및 국제비서 죠제 레이날두 까르발류,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아델리누 리베이루, 제 인민간의 평화와 련대성을 위한 브라질쎈터 위원장 쏘꼬호 고메스, 브라질근로자중앙 전국위원장 아딜쏭 아라우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11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청년동맹조직을 선군청년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27개의 초급청년동맹위원회와 36명의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4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침으로써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빛내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 라선시군민경축대회 진행

【평양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 라선시군민경축대회가 11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선군조선의 국력을 무변광대한 우주에 새긴 끝없는 환희와 격정, 주체의 위성강국의 주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담은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강원도군민경축대회장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를 박태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김창룡, 조선인민군 장령 리경원,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최명국,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지성남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우주개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선군조선의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에 날아오름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하늘에 닿았고 온 나라에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약동하는 기상과 활력이 더욱 차넘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을 더 많이 생산하고 도안의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며 례성강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이 감히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즉시에 달려나가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럭 휘날리며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를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신정남, 조선인민군 군관 백명철, 원산농업종합대학 연구사 리용수,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옥영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무비의 담력과 명철한 지략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의 실용위성들이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들며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도발광증을 부리지만 주체의 위성들은 앞으로도 태양조선의 푸른 하늘로 계속 기세차게 날아오를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모두가 원군미풍열성자가 되여 분계연선 강원땅을 군민철옹성으로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군인들은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발전소, 탄광,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농산과 축산, 수산부문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중요전실대상들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산림복구전투에서 비상한 애국열의를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공장, 기업소들의 주요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이래 주체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명장들의 대부대로 자라난 청년들은 승리의 5월을 향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힘있게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를 리상원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김경숙, 조선인민군 장령 리일환, 혜산농림대학 학장 최창덕,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최경일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성과적으로 발사된 오늘의 민족사적대경사는 백두산대국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천만군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당한 위성강국의 공민이 된 크나큰 긍지를 안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더 잘 꾸리며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답사자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광물과 통나무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대홍단군, 백암군, 삼지연군을 비롯한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듯이 주체조선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즉시적이며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과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를 림경만 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비서 리성룡, 조선인민군 군관 김광호, 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룡길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우에 우뚝 솟려세우려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속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또다시 온 세계가 보란듯이 쏘아올린 위성이기에 오늘의 성공이 더욱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활성화에 힘을 넣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시의 면모를 일신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생산설비와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최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를 앞장에서 점령하며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백두산기슭의 사회주의선경은 영원한 태양복을 노래한다

장군님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유서깊은 삼지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광명성절은 사람들에게 류다른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는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으로 더욱 설레이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뜨거운 숨결을 체험하며 우리가 삼지연땅에 도착한것은 어름이 질이갈무렵이였다.

례년에 없는 북방의 강추위와 눈보라가 우리에게 백두산칼바람의 맛을 보여주려는듯 세차게 불아쳤다.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618전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깨끗한 충정의 마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삼지연읍에 정성껏 꾸린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장을 찾아가고있었다. 우리도 그들의 물결에 실려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장을 찾았다.

땀깐 추위와 눈보라가 세찬 2월의 삼지연이였지만 첫걸음을 내짚는 순간부터 뜨거워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있었으나 축전장을 쉬이 떠나지 못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행군대원들의 열기띤 모습을 보아도, 백두의 강추위속에서 삼지연못가의 순결한 얼음으로 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엮은 618전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의 정렬한 대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어버이장군님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삼지연땅의 그리움의 열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삼지연땅에 펼쳐진 얼음조각축전장이 뜨겁게 전해주고있었다.

삼지연군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온 지구의 이채로운 풍경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해한다.

베개봉다리우에서 바라보이는 풍치가 아주 좋다고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은 폭포주변의 희한한 서리꽃, 기기묘묘한 자연바위들이 하나의 봉산을 이룬 곳에 여러 갈래의 폭포가 얼음기둥을 줄줄이 드리운 공원과 아이들이 팽이치기에 어념이 없는 인공호수얼음판, 수림속에 자리잡은 아담한 천지원, 옥류관을 방불케 하는 베개봉국수집과 멋쟁이 삼지연장공장, 특색있는 백두산지구 체육촌…

어름에는 붉고 푸른 갖가지 색들로 장식된것이 마치 그림속의 동화세계를 보는듯싶었다면 겨울에는 흰눈이 쌓여 희한한 설경을 펼치며 백두의 서리꽃과도 같이 자기의 멋을 한껏 자랑하는 삼지연읍거리는 어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지를 소중히 전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믿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군당위원회의 일군인 박은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삼지연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속에 여기 백두산기슭에도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삼지연땅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것인가.

뭇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크지 않은 귀틀집에서 하루밤을 묵으시면서 림산마을사람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밤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시며 삼지연지구는 앞으로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될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귀틀집은 찾아볼수 없고 여기에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시가 일떠서게 될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름없는 림산마을사람들과 하신 그날의 약속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수십차례나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며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하기에 흰눈세계속에 아름답게 피어난 눈꽃을 바라보아도 주체68(1979)년 3월 옛 모습을 떨어버리고 훌륭하게 꾸려진 삼지연읍거리를 걸으시며 삼지연이 천지개벽됐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그이의 거룩하신 현지지도의 지욕이 새겨진 단위들은 그 얼마이던가. 주체95(2006)년 3월 새로 건설한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한 어버곳을 돌아보시면서 온갖 시름 잊으신듯 환히 웃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거룩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우리는 삼지연사람들의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가슴에 새기며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았다.

일떠선 도로와 미장을 한눈 지선적각으로 가슴이 넘게 쌓여진 흰눈담벽을 지나 교양마당으로 들어서느라니 마치 정갈한 눈조각의 세계를 걷는것 같았다.

초연이 슴배인 항일전의 군복차림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올린 우리는 탑사자들과 함께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보면 볼수록 정신이 번쩍 드는 조각상 《전적의 나팔수》는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장엄한 총공격전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부르는듯싶었고 혁명의 총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유격대원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각군상은 선렬들이 피로써 찾은 조국을 한목숨 다 바쳐 수호하고 끝까지 빛내여갈 각오가 용솟음치게 했다.

대기념비에서 받아안은 흥분을 안고 삼지연읍의 천지개벽한 모습을 다시 보느라니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인민의 행복도 꽃펴날수 있고 사회주의강성국가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 진리가 새삼스레 가슴을 쳤다.

우리는 삼지연군의 자랑인 백두관에도 들려보았다.

백두산천지안내실, 삼지연안내실, 혁명수안내실, 무봉과 대홍단안내실을 비롯한 어버 안내실들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2층에 있는 전자열람실에서 백두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상식들을 체득할수 있게 꾸려진 백두관은 말그대로 혁명사적부문의 전자도서관이라고 할수 있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이였다.

백두관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백두산종합박물관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깊이 마음쓰신 삼지연군문화회관이며 삼지연1려관을 비롯한 어버곳에서도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언제인가 삼지연의 희한한 전변을 두고 깊은 감회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멋있게 꾸려진 삼지연읍지구를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라고 뜨거움에 젖어 교시하시였다.

그날의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가슴에 새길수록 세해전 11월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삼지연군에 찾아오시여 삼지연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삼지연인민들의 생활문제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시기 위해 새겨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의 자욱은 그이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이며 일군들이 인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깨우쳐주신 삼지연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 베개봉국수집 그리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자신께서는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깊은 물고기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땅은 오늘도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로 수놓아진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못 잊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 신념의 맹세를 안고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마을은 잠들지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준혁

며칠전 우리는 삼지연군에 새겨진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세상에 전하고싶어 한 살림집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70살난 송혜순녀성이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를 집안으로 이끌었다.

널직한 부엌에 세칸으로 된 살림방들, 세면장과 위생실, 창고, 때란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두터운 보온재에 싸여있었다.

게다가 밤도, 방안의 난방보장도 전기로 하게 되여있어 도시살림집 부럽지 않았다.

방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주체91(2002)년 10월 7일 송혜순녀성의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이였다.

우리가 사진문헌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자 송혜순녀성은 꿈만 같은 그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집을 찾으신 날은 진눈까비가 흩날리는 궂은날이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살림집에 들어서시였다.

주인내외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부엌부터 살펴보시였다.

알뜰하게 꾸려진 부엌을 둘러보시면서 밥을 무엇으로 짓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밥도 전기로 짓고 방도 전기로 덥힌다는 송혜순녀성의 대답을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송혜순녀성은 그때 삼지연사람들이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난방화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평생 잊을수 없다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송혜순녀성의 이야기에서 자나깨나, 꿈결에도 뵙고싶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리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그이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여가려는 삼지연사람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진정을 읽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따뜻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사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기쁨넘친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송혜순녀성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행복의 보금자리

리명수폭포에서 다시금 새기는 철리

2월의 리명수폭포는 그야말로 절경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길이 개척되던 력사의 나날에 있었던 뜻깊은 사연이 가슴후덥게 되새겨진다.

력사의 그 나날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명수폭포의 소연한 물소리를 들으시며 오래도록 한자리에 머물러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여 복잡한 나라정세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이런 때일수록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충직하게 받들며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이 흘러간 오늘 리명수폭포를 찾는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그날에 제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백두판을 교양장소로 꾸린것만큼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가게 하는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직이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콤퓨터실을 꾸리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층안내실들에 더 놓자고 하면 콤퓨터들은 2층에 가져다놓아야 한다고, 2층에 콤퓨터들을 놓고 1층에 있는 해당 안내실들과 련결시켜놓으면 요구되는 자료들을 볼수 있을것이라고, 혁명전적지문제를 비롯하여 력사자료들을 더 파고들어보겠다는 사람들은 2층콤퓨터실에 와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그 방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오래동안 혁명사적사업을 해왔다고 자부하던 우리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사적사업에서도 콤퓨터화, 정보화실현을 힘있게 내밀수 있도록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백두관이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완벽한 체모를 갖추도록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백두산종합박물관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나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일떠선 백두관의 일군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잘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백두관 관장 서철환

6년전 그 나날의 감동깊은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9(2010)년 5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여러날에 걸쳐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것은 유서깊은 삼지연군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마지막현지지도였다.

세심히 가르쳐주신 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에서 준비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실 때였다.

예술소조공연을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문화회관복도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공연에 당에 대한 노래,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들만 있고 생활적인것은 없다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러시면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예술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수 없다고, 오늘 삼지연군예술소조공연에 주로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작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도 내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선군장정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북방의 멀고 험한 길을 헤치시며 군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망정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선전대나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등 군중예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삼지연군의 군중예술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달라진 학술체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혁명사적관도 찾으시였다.

총서관을 거쳐 진렬실에 들어서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시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과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신 여러 자료와 전시품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일군들에게 보천보혁명박물관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렇다고 하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자료는 삼지연혁명사적관보다 보천보혁명박물관에 더 상세히 전시되여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력사자료들을 중복전시하는 현상을 없앨데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고서야 일군들은 도안의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에 전시된 자료들이 서로 어슷비슷하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사적관의 일군들은 경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수많은 일군들과 혁명사적부문의 전문가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수령님께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학술체계를 바꾸게 되였으며 그후 그것은 온 나라의 혁명사적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늘도 전해지는 사랑의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군에 남기신 사랑의 자욱자욱은 삼지연장공장에도 새겨져있다.

삼지연인민들에게 맛좋은 된장, 간장을 공급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자신의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산골군의 자그마한 장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오랜 시간 공장의 어버곳을 돌아보시며 원료의 보장과 수송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공장의 화물자동차문제에 관심하셨을뿐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를 풀기 위한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삼지연군 인민들이 전기로 밥도 짓고 난방도 보장하면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도록 하여주시고도 오늘은 이렇듯 된 백두산밀영에 찾아오시였던 자료들과 삼지연대기념비, 삼지연읍전설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전시하여놓고 탑사생들에게 그 내용을 해설해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삼지연혁명사적관에서는 자기의 실정에 맞게 학술체계를 바꾸게 되였으며 그후 그것은 온 나라의 혁명사적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늘도 전해지는 사랑의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군에 남기신 사랑의 자욱자욱은 삼지연장공장에도 새겨져있다.

삼지연인민들에게 맛좋은 된장, 간장을 공급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자신의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산골군의 자그마한 장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오랜 시간 공장의 어버곳을 돌아보시며 원료의 보장과 수송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공장의 화물자동차문제에 관심하셨을뿐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를 풀기 위한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삼지연군 인민들이 전기로 밥도 짓고 난방도 보장하면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도록 하여주시고도 오늘은 이렇듯 된 장, 간장을 떨굴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뜨거운 격정이 솟구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장공장은 군대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앞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훌륭한 공장의 면모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하며 생산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화물자동차가 삼지연군에 도착하게 되였다.

진정 삼지연군 인민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강원남

자애로운 그 모습 그립습니다

오늘도 백두관을 찾아오는 참관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의 끝없는 심혈의 세계가 되새겨져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나는 오래동안 백두산에서 혁명사적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다.

내가 백두관 관장으로 사업하게 된것은 백두관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체91(2002)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이 마지막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우리 백두관을 찾으시였다.

이날 백두관을 돌아보시며 홀에 꾸려진 대형반경화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대한 종합안내》라는 편집물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백두관을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탐사자들을 위한 종합안내봉사기지로 새롭게 꾸린것은 잘하였다고, 삼지연지구에 그런 종합안내봉사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래형으로 된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거기에는 한쪽에 청량음료대대가, 다른쪽에는 기념품매대가 꾸려져있었다.

매대앞에 서시여 깊은 생각에 잠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주체99(2010)년 3월 10일이였다.

봄이라 하지만 북방땅의 바람결에는 겨울의 랭기가 스며있었다.

금수골혁명사적지 강사 백혜영은 휴식날이였지만 출근길을 서둘렀다.

회천시 대흥동에 위치한 금수골혁명사적지는 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지켜가는 초소이다.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2(1953)년 2월 26일과 28일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방향과 회천정밀기계공장이 나아갈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력사적인 장소이다.

그는 사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그날들에 대하여 알려주는것보다 더 보람있고 긍지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집문을 나서자 상쾌한 아침기운이 명주필처럼 목에 칭칭 감겨드는데 까치 한마리가 유난스레 울었다.

《깍깍깍— 깍깍깍—》

(아침까치는 반가운 소식이라는데 우리 집에 기쁜 소식이 찾아오려나.)

벌스레 자기목을 향하여 우는 까치이서 혜영에게는 이런 생각마저 드는것이였다.

까치가 안고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였으면 하고 까치의 울음소리에 희망도 얹어보는 그였다.

까치는 여전히 큰소리로 울었다.

혜영은 걸음을 재촉했다. 까치는 계속 따라오고있었다. 걸음을 멈추면 긴 꼬리를 살룻이 드리우며 까치도 내려앉았고 걸음을 옮기면 허공중에 날아올라 자기를 보고 유정한 소리로 깍깍거렸다.

(혹시 우리 장군님 소식을 저 까치가 전해주려는것이나 아닐가.)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까치는 울난스런 소리로 울었다.

혜영에게는 《이른새벽 까치가 울면》 하고 널리 불리우던 노래의 구절들이며 인민들속에 전해지고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어느 한 군관학교 현지지도때에도 까치들이 먼저 날아와 류별나게 울었고 또 언젠가는 한 닭공장구내에서 까치들이 청돈구어 울더니 얼마 안있어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 않는가.

그래서 이른새벽의 까치소리를 들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초소, 자기 공장, 자기 마을에 오시지 않을가 하는 희망과 소원에 가슴부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혜영의 심정 역시 다를바 없었다.

간절한 소원은 더욱 커갔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혜영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적지에까지 오시라 하는 생각에서였다.

꼬리무는 생각을 애써 눌러버리며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나 까치는 계속 따라오며 어전히 울어댔다. 혜영이를 사적지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듯.

사적지에 도착한 혜영은 까치에 대하여서는 까마득히 잊고 긴장한 하루일과를 시작하였다.

얼마후였다. 혜영에게 회천시내의 공장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적지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다음 순간 혜영에게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3월이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자강땅이다. 밤새 얼었던 사적지 교양마당이 따스한 낮이면 녹으면서 신발에 흙이 묻어날것이 걱정이였다.

먼길을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신발에 교양마당의 흙이 매여달리면 어쩌랴. 오후만 되면 터지는 유명한 골짜기바람마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보통날과 달리 해빛은 따뜻한데 교양마당은 녹지 않았고 바람도 터지지 않아 혜영은 꿈아닌 현실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구나.)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사적지교양마당에 들어서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금수골혁명사적지 강사 백혜영입니다.》

그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적지표식비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비문을 읽어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53년 2월이면 전쟁승리를 다섯달 앞둔 때였다고, 수령님께서는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이곳을 두차례나 다녀가시였다고 전화의 그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당가에 키높이 자란 잣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나무가 멋있다고, 력사의 증견자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혜영의 손을 잡아주시며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라고 믿음의 과업도 주시였다.

혜영은 기쁨속에, 눈물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바래워드리였다.

차를 점도록 바라보던 그는 하염없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잡아주신 손이였다.

그때 또다시 《깍깍》 까치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다보니 전나무우듬지에 앉아 울던 까치가 하늘로 날아갔다.

아침에 자기의 걸음을 재촉해준 까치가 분명하였다.

그 까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래워드리고서야 날아간것이다.

혜영은 그 까치가 보통까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어쩌면 청양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깃을 내리고 사는 새가 아닌지.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오늘도 백혜영은 사적지에 오는 참관자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하여, 금수골혁명사적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에 대하여 강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목격하였던 까치이야기에 대하여 들려주는것도 잊지 않는다.

숨소리마저 죽이고 강사의 해설을 듣고난 참관자들은 깊은 감동속에 머리를 끄덕이며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진정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 천출위인이시라고.

본사기자 김철혁

실화

금수골의 까치소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이 농업전선의 선봉에 서자

수령의 유훈관철전이자 풍년의 지름길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올수록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한드레벌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지난해의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계획을 160%이상 넘쳐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알곡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이다.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다시금 만방에 떨친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인 발사소식에 접한 이들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가 되여 선봉에서 돌격해나갈 때 온 나라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이것이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신조이다. 하기에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는데 비약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알곡증산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올해농사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뼈심을 들여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신 교시였다.

물론 해마다 정보당 수십t의 거름과 많은 흙보산비료, 소석회, 재생산과 실어내기, 논흙짤이와 밭돌추어내기 등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뼈심을 들여 지력을 높이고있다고 맺맺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세우자 최근년간 포전별수확고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다시 분석해보게 되였다. 소출이 낮은 포전들에는 례외없이 철, 망간, 동을 비롯한 미량원소가 부족하였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놓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떤 높이에서 관철해왔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였다. 더우기 당에서는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것을 바라고있지 않는가. 결정적으로 모든 포전에 미량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해주어야 하였다.

이때 일군들이 주목을 돌린것은 질석이였다. 질석에는 많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어 농작물의 생육에 아주 좋았다. 지난해 농사경험에 의하면 질석을 충분히 낸 포전의 농작물은 실하게 자랐으며 가을하기 전까지도 푸른 잎색을 유지하였고 천알무게도 더 늘어났다.

방도가 명백해졌다. 질석을 정보당 2t씩 낼 목표밑에 농장으로부터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실어오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그리고 농작물이 잘 흡수할수 있게 질석을 구워서 포전에 내도록 하는것도 놓치지 않았다.

지력을 높였다고 알곡생산량이 저절로 늘어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때만이 높은 지력도 알곡생산에서 큰 은을 낼수 있다.

일군들은 이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정보당 소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머리를 쓰며 집체적지혜를 합쳐 찾아낸 알곡증산방도의 하나가 바로 강냉이영양단지씨넣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였다.

지난해농사파정을 분석해보면 우선 영양단지씨넣기를 20일정도 앞당겨 진행하는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씨넣기를 4월 5일부터 15일사이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생육기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소출을 높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받군 하였다. 그렇다고 생육기일이 짧은 품종으로 바꿀수도 없었다. 이미 재배하던 품종만큼 소출을 낼수 있다는 담보는 없었기때문이다.

결론은 명백하였다. 일군들이 결심하고 받아들인것이 영양단지씨넣기날자를 앞당기는것이였는데 확실히 좋았다. 생육기일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낮은 온도에서 단련되여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는 힘이 세졌다. 그리고 대가 굵고 뿌리기능이 왕성해져 높은 소출을 담보할수 있었다.

일군들이 다음으로 중시한것은 영양단지씨넣기를 할 때 서로 다른 품종의 종자들을 일정한 비률로 섞어심는 방법을 도입하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강냉이는 생육기일이 비슷하다고 하여도 꽃가루날리는 시기가 차이난다. 품종별로 심을 때에는 매 품종이 꽃가루날리는 기간에만 수정을 할수 있다. 결과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수정이 제대로 안되는 개체들이 생길수 있었다.

이 부족점을 극복할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일군들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결과 여러품종섞어심기방법을 도입하면 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이렇게 하면 한 품종의 꽃가루날리는 기일이 지났어도 다른 품종이 꽃가루를 날리기때문에 수정률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 또한 서로 다른 품종사이에 수정이 진행되기때문에 알찬 이삭이 달리는데도 좋았다.

종전방법과 이 방법을 받아들인 경우를 대비분석해보니 정보당 소출이 500kg-1t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자기가 바치는 힘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보탬이 된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특히 2월의 명절을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농장원모두를 선진농업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종자준비, 람조류생물활성퇴비생산을 비롯한 당면한 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농사성과에 대한 은흥리 사람들의 신심은 확고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해 부단히 머리를 쓰고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가는 여기에 바로 풍년의 지름길이 있기에.

본사기자 황철민

다수확을 담보하는 콩농사작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의 올해농사차비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가 콩농사에서도 앞장설 목표밑에 다수확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콩농사를 잘하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일군들이 지난해보다 콩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지난해 콩생산계획을 수행한것만도 큰 성과이다, 이보다 수확고를 더 높이기는 힘들다고 걱정하였다.

그때 일군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에서는 령도업적단위가 선봉에서 내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성과에 지만하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단위들의 전진속도도 떠진수 있다.

다수확품종으로 콩을 정보당 6t이상, 10t까지 내게 되면 콩농사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비추어볼 때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하며 자화자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그럴수록 콩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더욱 품을 들이였다.

콩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무엇보다 종자문제부터 풀어야 했다. 일군들은 지난해 어느 한 군에 도입된 우량품종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른 품종에 비해 아지를 2배이상 침뿐아니라 한 포기에 콩꼬투리도 많이 달려 정보당 최고소출을 낸 품종이였다.

이때 일군들은 직지적작의 원칙에서 이 품종을 분석해보았다.

원그루로 심는 경우에는 별일 없지만 뒤그루로 심는 경우에는 생육기일과 생육적산온도가 맞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군들은 종전보다 한달정도 앞당겨 영양단지에 씨넣기를 하고 재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부족점은 가물전덜성이 약한것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군들은 토양습도가 보장되고 지력이 높은 포전에 이 품종을 심도록 하였다. 그런데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경지면적이 제한된것이였다. 농장에는 계획된 논면적을 제외하면 콩을 재배할 면적이 별로 없었다.

이때 일군들은 제2, 10, 11작업반들의 지난해농사경험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 작업반들에서는 두벌, 세벌농사방법을 받아들여 불과 5정보의 밭에서 강냉이 옹근소출을 내고도 많은 콩을 수확하였다. 이것은 생육기일과 생육적산온도를 놓고볼 때 뒤그루 콩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예상을 뒤집고 원화땅에서도 얼마든지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방도가 명백하면 확신이 생기는 법이다.

일군들은 농장의 강냉이밭에 이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었다. 특히 그전보다 우월한 보아심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네 이랑에 들어갈 강냉이를 두 이랑에 두줄로 보아심고 나머지 두 이랑에 콩이나 감자와 같이 키가 작은 작물을 두줄로 모아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랑사이거리가 넓어져 콩을 비롯한 키낮은 작물들에 해비침률과 통풍조건을 잘 보장해줄수 있었다. 결국 토지리용률이 높아져 적지 않은 콩밭면적을 거저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일군들은 종자확보와 유기질비료생산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온 농장이 세차게 들끓는 속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 2배이상의 유기질비료가 생산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화자찬을 최대의 금물로 보고 높은 목표밑에 계속 혁신해나가는 이들의 투쟁기풍에 의하여 가을에는 풍요한 결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성일

사랑의 온실마라에 봄향기 넘친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십가지의 새로운 남새품종을 육종하여 전국에 도입, 수경온실들에서 정보당 300t이상의 엄매남새 생산…

주체위성의 성과적발사로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는 이때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들려오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의 성과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서둘러 취재길에 오르게 하였다.

눈부신 아침해살이 비끼여 더욱더 화한하게 안겨오는 드넓은 온실바다를 가슴부듯하게 돌러보며 우리는 먼저 소장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토론하고있었다.

잠시후 소장 조남석동무는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방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남새품종에 대한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를 하던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남새품종들을 다 들여다 풍토순화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근 20종의 새로운 남새품종들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고 온 나라에 널리 퍼치였지만 이제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지금 온 연구소가 부글부글 끓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시험장으로 이끌었다.

눈길을 밟으며 3시험장 제1작업반 3호동 온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푸르른 남새바다가 펼쳐져 감탄이 터져나왔다. 더우기 눈길을 끈것은 애기주먹만 한 검은색사자고추들이 조롱조롱 열린 풍경이였다.

검은색사자고추의 잎을 유심히 살펴보던 처녀연구사 리은주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그는 이 새 품종의 사자고추에는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는데 C함량만 놓고보더라도 가지나 도마도에 비해 4~6배나 되며 A함량도 상당히 높다고 하면서 해열 및 진통기능, 식욕을 높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기능 등 여러가지 약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지난해 8월에 씨를 뿌린 후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확을 진행하면서 품종적특성을 연구하고있는데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검은색사자고추가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될것이라고 확신성있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일어 사박사박하고 만문하며 청신한 향기를 풍기는 맛좋은 유백채, 종합비타민제라고 할정도로 여러가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며 더우기 셀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음선암, 직장암,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인 실란화…

이처럼 좋은 남새들이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우리 생활에 와닿았을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연구소집단의 남모르는 노력도 뜨겁게 헤아려졌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소장은 모든 연구사들이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면서 연구사업에 정열을 쏟고있다고, 연구사들이 관리공들로 하여금 해당 작물들의 품종적특성을 알고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힘을 넣고있다고 말하였다.

며칠전 랭기온이 갑자기 내려갔을 때 모두가 땔처나 토양에도 박막을 씌워주어 10℃이상의 온도를 요구하는 검은색사자고추의 정상생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주었다는 소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그 정성, 그 열정에 떠받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새로운 남새품종들의 모가 한창 자라고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온 나라 온실남새농사에서 기수가 되여 당의 사랑을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전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머지않아 식탁우에 오르게 될 희귀한 남새작물이름들이 흐뭇하게 되새겨졌다.

빙채, 검은색유자, 통꽃부루, 분홍색시금치, 엄지손가락수박…

본사기자 장은영

흐뭇한 남새작황을 마련한 기쁨 넘쳐난다.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줄어든 생산원가를 놓고 새긴 진리

사리원닭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미 꾸려놓은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리원닭공장에서 닭알생산원가를 지난해보다 30%정도 낮출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 뜻깊은 2월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국가기준보다 알곡먹이량을 훨씬 줄일수 있게 한 이 성과에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시금 새겨안은 진리가 있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들중에는 먹이단위를 극력 낮추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도 있었다.

바로 여기에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더 많은 닭알을 생산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지난 시기 비록 어떤 부문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침가제처럼 리용할 각종 미생물효소제들을 생산하기 위해 꾸려놓은 토대가 은을 내여 올해에 들어와서도 먹이단위를 어느 정도로 줄일수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닭알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보다 적은 알곡먹이를 리용해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올해전투의 선봉에 서서 용을 쓰며 일떠설 생각은 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만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알곡먹이소비량을 더 줄일 방도를 찾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였다.

닭털분해물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 시기 그것을 리용해본 경험도 있었다. 문제는 순간적인 압력변화에 의한 기계적분해의 결과로 얻어진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의 흡수률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때 일군들의 뇌리를 친것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이였다.

목표가 뚜렷하니 방도가 명백해졌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 자강력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분발해나섰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의 힘과 열정을 합쳐간 이들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로 이어졌다. 공장에서는 활성이 강한 단백질분해효소를 내보내는 균을 리용하여 닭털분해물속의 아미노산함량이 높아질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한 미생물로 처리한 쌀겨와 잘 혼합하도록 하였다. 이때 쌀겨속에서 생긴 효소제에 의하여 닭털분해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결국 지난 시기보다 흡수률을 20%정도 높이면서도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충분히 포함된 대용먹이를 만들어 닭알생산원가를 30%정도 낮출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본받아 조건이 어렵고 불리할수록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뚜렷한 실천으로 관철된다는것, 이것이 지금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하고 더욱 분발해나선 이들이 다시금 새겨안은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성일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시킨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패당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전세계를 격동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게 한 민족사적대경사이며 강대국중심의 세계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꾼 인류사적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긴 우리의 정의의 장거에 대해 후련해하면서 진심으로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의 떳떳한 행사이다.

그 무슨 유엔 《결의》로 말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막고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저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그에 대해 인정한적이 없고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그 무슨 유엔 《결의》위반으로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못해 10일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6.15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10여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는 만고역적 박근혜 《정권》에 와서 전면폐쇄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이번의 도발적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의 기업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건설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며 6.15의 옥동자이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이 오늘은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녀성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애도, 그것이 구현된 제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메말라버린 박근혜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원래 박근혜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그 무슨 《돈줄》이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으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북남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을 들고나와 그것을 구실로 끝끝내 전면중단해버리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년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의 산물이다.

그런 가소로운 놀음에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라는것은 세상물정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악녀말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것처럼 떠드는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리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줄 모르는 박근혜야말로 머저리같은 《대통령》이 아닐수 없다.

밤낮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니다나니 제발로 걸어가는 범이란 애당초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같은 박근혜가 우리의 자강력이 얼마나 위력하고 긍지높은것인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진막장한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가 자력자강으로 핵강국으로 되였고 우주강국이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청와대의 촌닭인 박근혜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은 제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자살행위에 불과한것으로서 남비락을 맞은것은 남조선기업들과 인민들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역적패당자신들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합법적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중단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련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폐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2월 11일
평양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수행

강계갱목생산사업소 림토작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 림토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투쟁을 벌려 자강도림업관리국적으로 제일먼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 진입한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전으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드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집단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작업소 모든 생산소대들의 로동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비상한 각오안고 부락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채벌과 사이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소장 최경철동무를 비롯한 작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있는 로력과 설비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일군들은 산판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로동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의를 폭발시켜 더 많은 나무를 베도록 사회주의경쟁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잘 조직하였다. 작업소에서는 연유와 예비부속품들, 쇠바줄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소대들에서 채벌과 동시에 사이나르기실적을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운전수 현명학동무는 추운 겨울조건에 맞게 뜨락또르정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면서 사이나르기계획을 매일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각 생산소대의 로동자들은 지형조건에 맞게 수백m의 눈길을 내고 통쏘이를 대담하게 받아들여 사이나르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주체조선의 위성을 만리대공에 솟올린 우주정복자들처럼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애국열의에 넘쳐 지금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지나무더미들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을 철도역에 실어내기 위한 마감나르기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뜻깊은 광명성절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 개막되었다.

백두산대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적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백두령장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뜨거운 혁명열과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한생을 불태우시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범안리의 한 농촌살림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어리어있다.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동지의 전장을 넘려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혁명선배들을 무한히 아끼고 존대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에 어리여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혁명생애가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전하고있다.

전람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끝없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주체의 위성강국의 주인된 끝없는 긍지를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철석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여있다.

개막식이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태양조선의 력사에 찬연히 빛나는 광명성절은 우리 인민에게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의 행운을 대를 이어 안겨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인류공동의 혁명적명절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당한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제6차 전국소묘축전 개막

광명성절경축 제6차 전국소묘축전이 개막되였다.

전문가, 비전문가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미술가들, 애호가들,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이 창작한 360여점의 소묘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축전장중심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형상한 작품들인 《제일 기쁜 날》, 《아버지!》, 《병사들의 친어머니》가 모셔져있다.

축전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넘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반영한 《로동당만세》, 《우리 집》, 《행복의 물궁전에서》, 《파일향기》, 《달려가자 미래로》 등이 있다.

《백두청춘들》, 《승리의 보고》, 《혁명군가》를 비롯하여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있다.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11일 개막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박춘남문화상이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시기에 광명성절경축 제6차 전국소묘축전 개막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을 참다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첫막을 올린 전국소묘축전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여섯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소묘축전이 주체미술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소묘작품들을 돌아보았다.

영화상영주간 개막

광명성절경축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였다.

이번 영화상영주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백두광명성》, 《빛나라 정일봉》,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등의 기록영화들이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 상영되게 된다.

《백옥》, 《백두의 붓나무》, 《미행사 길영조》, 《버꽃》, 《성강의 파도》, 《시대가 주는 이름》, 《어머니의 행복》을 비롯한 예술영화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이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위성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광명성절경축 영화상영주간을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간고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적국면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영화상영주간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천출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 혁명해온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로 한생을 빛내일 결의를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꽃》 23 《선군시대의 숨은 영웅들》을 관람하였다.

이날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녀맹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녀맹위원장 김은희, 서성구역녀맹위원장 김명란, 락랑구역 충성2동 녀맹원 고은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을 새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에 성공한 기쁨과 긍지를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있어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지고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녀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하늘같은 믿음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백두의 억센 신념으로 온넋과 심장을 불태우시며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영광스러운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시였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선군혁명동지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조직들이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녀맹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자녀들을 청년강국의 믿음직한 주인공,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울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언제나 녀맹원대중속에 들어가 동맹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함으로써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이 진행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된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우수한 휘거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속에 열리는 특색있고 의의있는 축전이다.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은 2월의 명절을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1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피받들려 세상에 놀도 없는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윽히 갖추어진 여러 소조실들에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꽃피우고있는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땀밤 쑬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참관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선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고 훌륭하며 이곳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후대사랑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주조 무관단

대덕산초소 방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1일 대덕산초소를 방문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에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을 렬렬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울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초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백두의 선군령장들에서 초소를 찾아주신 영광의 그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군인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이어 무관단성원들은 일당백의 기상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초소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는 총대는 나라의 자주권을 상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당백》 구호의 정신을 이곳 군인들이 훌륭히 구현해나가고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초소의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면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이라는것을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이날 무관단성원들은 관문점을 참관하였다.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과학기술전당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1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웅장화려하게 건설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의 응용과학기술관, 어린이공관, 전자열람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빠웰 메샤꼬브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현대과학기술을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관철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곳은 어른들뿐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배움의 전당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이 전당에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기여할것이다.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를 방문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상건 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로씨야의 외교일군절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메고바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꾸바에 가는 교육위원회대표단 출발

꾸바에서 진행되는 제10차 고등교육에 관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송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전극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고마운 제도가 안겨준 백살장수자의 기쁨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속에 서흥군 읍 101인민반에서 사는 우선비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꿈만 같이 차례진 영광과 행복앞에서 할머니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해방전 가난한 농사군의 딸로 태여난 그는 일제와 착취계급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망국노의 설음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그는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랜 기간 광산로동자로 성실히 일하였다.

할머니는 자식을 많이 낳아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내세웠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떠밀어주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헤나가고있다.

식생활에서 고구마음식을 특별히 좋아하고 편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자기가 장수할수 있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손들에게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늘 당부하고있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와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자자손손 길이 전하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후방가족의 자랑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들속에는 염주군 하석협동농장 제5작업반 김영일, 김연옥부부도 있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대의 귀중함을 새겨주면서 위대한 수령님 따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찾은 조국, 전화의 날 인민군전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을 총대로 지켜야 한다고 늘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부모들의 간곡한 당부를 안고 세 아들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자식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들부부는 자식들에게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충복만 용사가 될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군 하였다.

이들부부는 조국보위초소에선 자식들에게 뗏뗏하기 위해 맡은 농사일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다. 근 20년을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군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영일동무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작업반원들을 이끌고있다.

김영일, 김연옥부부는 농사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많은 집짐승을 길러 해마다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며 원군사업에서도 앞장에 서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윤복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주체예술의 조기성악교육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선구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양시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분과장 겸 부교장 리인희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비육성사업은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나라의 문학예술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새싹이였다. 아직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신인가수였다. 놓치면 묻히고말았을 그 싹을 어머니당이 품어안았다. 따사로운 그 품은 요람의 아기를 보살피듯 수심년세월 사랑과 정으로 새싹을 키웠다. 새싹은 거목으로 자랐고 아지마다에 꽃들이 만발했다.

나라의 관록있는 모란봉악단과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과 피바다가극단 등 예술단체들의 이름있는 가수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당의 음악정치를 받들어나가는 시대의 나팔수들이 바로 그 꽃송이들이다.

따사로운 해빛이 키운 어제날의 새싹!

그는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분과장 겸 부교장 리인희동무이다.

재능의 새싹들을 찾으실 때마다 그토록 기뻐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근 30년간 조기성악교육에 온 심혈과 넋을 쟁그리 바쳐온 리인희동무의 삶은 부강조국의 미래를 말아키우는 교원혁명가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고동쳐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새 싹 과 재 부

지난해 봄 조기성악반 초급2학년교실에서는 정일경학생이 자기가 지은 시를 발표하고있었다.

곱게곱게 꾸려진 교실은 꽃송이
정갈하고 깨끗한 복도는 꽃잎
꽃밭에 앉아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우리는 행복의 꽃씨앗입니다
…

그날밤 리인희동무의 책상우에는 그 시가 놓여있었다.

《눈물이 다 났습니다.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의 인사말가. 그동안 우리가 바쳐온 진정을 학생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국어교원으로부터 수업시간에 있은 이야기를 들은 학급담임교원이 그 학생의 학습장을 리인희동무에게 펴보이며 하던 말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학생의 학습장을 돌려가며 읽어보면서 조용히 눈물짓던 교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정은, 조명순, 최경희…

10여명의 가정부인들이 눈물과 땀으로 쓸고 가꾼 청사였다.

조기성악반이 쓰고있는 2호청사 어느 구석인들 그들의 손길이 슴배지 않은 곳이 있던가. 고난의 혼직이 력력한 청사를 넘겨받아 10여년세월 오늘과 같이 일신시킨 청사였다.

하지만 리인희동무가 밤깊도록 앉아있는것은 그때문만이 아니였다.

그의 눈길은 학생이 쓴 시의 한 단어에서 떠날줄 몰랐다.

꽃씨앗!

그의 복된 삶, 인생의 모든것이 바로 그 단어와 련결되여있었다.

그의 고향은 함경남도 장진군이다.

어린시절 그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시간은 저녁마다 아버지무릎에 앉아 승리한 조선의 노래를 배우는 때였다. 아버지는 자습으로 음악공부를 한 산골학교 교원이였다. 학생들에게 노래를 배워줄 때와 같이 정열적으로 어린 딸에게 배워주는 아버지의 노래는 그대로 재를 털고 일떠서는 조국의 기상이였고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화목한 생활이였으며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세기적변혁을 이룩해가는 내 조국의 미래였다.

노래와 함께 걸음마를 떼고 노래를 부르며 조국을 알게 된 산골소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혁명의 근복을 입었으며 제대되여 피바다가극단 배우로 되였다. 가극혁명의 힘찬 포성이 울려퍼지던 때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려나가던 그는 주체62(1973)년 3월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피바다가극단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시연회를 보아주신것이다.

가극단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한지 일곱달밖에 되지 않은 리인희동무는 어떻게 무대에 나섰고 노래를 불렀던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났어도 가슴은 그냥 방망이질을 해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한 일군이 어버이장군님께서 녀성민요 2중창을 한 동무들을 부르신다고 알려주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다.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어떻게 한걸음에 달려갔고 인사를 드렸던지.

온넋은 오늘 새싹을 찾았다고, 이렇게 새싹을 찾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맞아주시던 그이의 모습에 끌려있었다.

새싹을 찾으신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민요 2중창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리인희동무의 두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배우, 성악적기교로 보나 무대경험으로 보나 덜 성숙된 애송이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도 두 장면밖에 출연하지 않는 그야말로 새싹이였다. 그러한 새싹을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신것이다.

그날 리인희동무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주체예술을 떠받드는 거목이 되겠습니다.)

그 후 리인희동무는 어버이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속에서 세련되고 재능있는 민요가수로, 혁명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예술선동의 실천속에서 혁명화된 참다운 주체예술인으로 자라났다. …

리인희동무는 학생의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방음장치가 된 전파실들, 전문예술단체의 무용련습장 못지 않게 꾸려진 률동수업실과 600석의 관람석과 예술공연을 보장할수 있는 무대를 갖춘 강당, 복도들에 게시된 직관관들…

실로 그 하나하나는 중학교 음악분과에서 전문적인 분과나 청사도 없이 시작되였던 조기성악교육의 든든한 밑천이였다.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려나가던 리인희동무가 무대를 떠난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전 당의 조기성악교육방침을 받아안고서였다. 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자진해가는 그를 리해한 사람은 얼마 없었다. 그 역시 쉽게 결심한것이 아니였다. 화려한 무대생활은 그에게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담보하고있었다. 하지만 음악교원이 된다는것은 성공이 약속되여있는 인생을 후대들의 밑거름으로 아낌없이 바친다는것이였다. 성공과 명예, 희생과 밑거름, 이러한 갈림길에서 누구인들 망설이지 않으랴. 리인희동무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새싹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이 새겨져있었다.

새싹을 찾으실 때마다 그리도 기뻐하시는 그이께 새싹으로 엮은 아름다운 다발을 드릴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더 바랄것이 무엇이겠는가.

당시 조기성악교육은 시범단계에 있었다.

미변성기의 학생들을 조기환성시킬것인가 아니면 변성기를 기다릴것인가.

나름대로의 당당한 주장들이 있었다. 리인희동무도 선택을 해야 했다. 물어볼 사람도, 들어다볼 책도 없던 그때 리인희동무는 당의 조기성악교육방침을 다시금 깊이 연구하였다.

조기성악교육방침을 내놓은 당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그는 앉으나서나 길을 걸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한 생각뿐이였다.

그는 조기성악교육의 의의가 단지 성악적나이를 앞당기는데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거목으로 되자면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것처럼, 높은 집일수록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것처럼 세계적인 성악가수를 키워내자면 성악적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리인희동무는 변성전의 환성에 기초한 조기교육을 결심했다. 그것은 변성전의 환성으로 성대를 보호하고 변성을 쉽게 넘기며 특히 조기환성때부터 소리길열기에 들어감으로써 변성기이후 개별적학생들의 소리작성과 색갈에 맞는 성악교육을 보다 빨리 진행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처음 해보는 변성전의 환성에 기초한 교육은 쉽지 않았다.

어느날 음악분과실로 한 학부형이 찾아왔다. 학부형은 다짜고짜 이 학교에서 딸을 떼달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이에 망쳤다고, 인민학교(당시)때 그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딸애가 노래를 부르는것인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것이였다.

첫 학부형은 리해시켜 보냈으나 그런 학부형들이 늘어나자 리인희동무도 망설여졌다. 정말 내가 선택한것이 옳은가.

아마도 그때 자식을 둔 학부형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밤을 밝힌것은 리인희동무였을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옥죄이는것은 잘못된 선택때문에 귀중한 새싹을 망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였다.

1년 365일이 왜 그렇게 더디게 흘러가던지. 조기성악교육에 발을 들여놓은지 1년이 지났다. 그 나날 그가 맡은 학생들속에서 누구는 변성기를 맞았고 누구는 변성기를 넘겼으며 아직 변성기전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리인희동무는 의사가 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듯 각이한 학생들의 개별카드를 만들어놓고 성대와 음역, 소리색갈변화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했다. 그 과정에 자기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정했다.

나라에서는 3개 학교에 분산되여있던 조기성악교육력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조기성악교육분과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믿음으로 리인희동무는 첫 조기성악분과 분과장으로 되였다. 시간이 모자랐다.

전파과목들의 교육강령을 작성하고 교수안을 집필해야 하였으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학생교육과 교양 등 일반학교들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맡아해야 했다.

어느날 밤늦게 집에 들어선 리인희동무는 깜짝 놀랐다. 어두운 방안에서 혼자 울고있던 딸애가 그에게 매달리며 아버지가 배아파하는 오빠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는것이였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들은 급성충수염수술을 받은 후였다. 왜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는가고 물었더니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니야 바쁘지 않나요.》라고 했다. 《바쁘면 군복입은 아버지가 더 바쁘지.》라고 아들의 손을 꼭 잡는 리인희동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예술활동을 하던 그 나날에는 새벽 3~4시가 되여서야 학교에서 아이를 업고 퇴근하였다가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여 맡기는것이 상례였다. 점먹으로, 청산리로 경제선동을 나갈 때면 금방 젖을 뗀 아이들을 옆집에, 아래집에 맡겨야 했고 휴식일에는 밀린 집일을 하느라 언제 한번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미술박물관이며 유희장으로 가보지 못했

독도가 누구의 땅인데 감히 넘겨다보는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판이 독도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조선지도를 홈페지에 올리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백주에 조선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를 남의것처럼 만든 양키들의 망동에 조선사람들 누구나 민족적의분을 누르지 못하고있다.

독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조선의 땅이다. 비록 륙지와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 민족은 독도를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겨왔다.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이기에 이 섬에 기어들었던 침략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권을 론증해주는 자료들은 허다하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립증하는 자료가 계속 발굴되고있다. 지난해에는 1950년대 당시 일본정부와 국회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공개되였다.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에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다. 여기에 그 어떤 미해명문제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판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를 지워버린 지도를 사용한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다. 미국무성의 홈페지에는 독도가 빠진 지도가, 미중앙정보국의 홈페지에는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바꾸어 표기한 지도가 실렸다. 2011년에 미국은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할데 대한 공식의견까지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일본의 《독도령유권》, 《일본해》주장을 비호하기 위한 계획적인 술책이다.

미국이 일본의 령토야욕을 키질하며 극구 비호두둔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전조선반도에 대한 병탄야망,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반도를 노린 미일의 공모결탁은 오랜 력사적루리를 가지고있다. 19세기 해외침략의 방향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린 미국이 《포함외교》수법으로 조선을 강점하도록 일본을 적극 부추기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1905년 미일사이에 조작된 《가쯔라—타프트협정》은 파렴치한 날강도무리들의 범죄적공모결탁의 산물이였다. 여기서 미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인정하기로 확약하였다.

승냥이와 늑대가 고기덩어리를 놓고 흥정하듯 다른 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민족의 운명을 유린롱락한 불법무도한 《협정》이 나온데 이어 곧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했다.

분렬된 조선반도는 미일침략자들의 공모결탁의 진상을 고발해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군정》실시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것도,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 전령토를 솔동기지, 병참기지, 수리기지로 섬겨바치며 발벗고 뛰어든것도 일본이였다.

조선반도를 대륙에로의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본 미일의 전략적타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며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리면에는 재침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오늘날 화약내를 풍기며 질주하는 미일동맹은 미국의 지배전략과 일본의 재침책동에 복무하는 전쟁도구이다. 국제무대에서 정치, 경제, 군사전략적의의가 커가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야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몇해전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의 핵심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확립이다. 군사전략적중심을 이곳에 정한 미국은 그 실현에서 추종국들 특히 일본의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일본은 그들대로 미국의 침략정책에 발맞고 적극 가담, 협력하여 륙수에 찬재침야망을 한사코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방대한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은 해마다 군사비를 늘이며 최신군사기술의 획득, 신형무장장비의 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이런 일본을 자들의 지배전략실현에 깊숙이 끌어들여 리용하려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킴으로써 패망의 앙갚음에 들떠있는 군국주의피들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광범한 여론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두고 유사시 일본《자위대》무력이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명목으로 제 마음대로 남조선에 들어올수 있게 한 침략문서로서 제2의 《가쯔라—타프트협정》이라고 평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력사외곡의 범위를 벗어나 로골적인 무력강탈시도로 번져가고있다.

일본은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다께시마 판할부대》로 지명하였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점령한 적을 격퇴하는 륙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사격훈련도 실시하였다. 일본《자위대》가 독도강탈을 노린 실전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무력도발로 강탈하여 조선동해에서 군사작전범위를 확장하는것은 미국이 바라는바이다.

때문에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슬금슬금 국제여론전을 펴는것이다.

머지않아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에게 독도를 일본에 떼넘기라는 호령질도 서슴지 않을것은 뻔하다.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일제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도 어물쩍 덮어버리도록 주구들을 압박한 미국이다. 일본외상이란자가 자국이 잃은것은 《10억¥뿐》이라고 뇌까리고 정부가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인하고있는것은 섬나라의 력사외곡과 재침을 적극 부추기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존엄도, 정의와 륜리도덕도 마구 짓밟고 정치의 롱락물로 악용하는 미국이고보면 아양떠는 식민지충견에게 땅을 주라고 지시하는것쯤은 별로 어렵지 않을것이다.

식민지롱독부나 다름없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판이 외도적으로 독도를 지워버린 조선지도를 사용하고있는 사실은 일본과 야합하여 우리 나라의 령토를 빼앗으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강탈국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이 땅은 결코 외세가 제멋대로 란도질하던 이제날의 수난의 대지가 아니다. 조선민족은 망국노의 설음을 숙명으로 감수하던 약소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를 넘겨다보는 파렴치한 날강도무리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조미대결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패자가 된 미국도, 지난 세기 40년대에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도 철천지원쑤, 백년숙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치솟는 적개심, 불타는 보복열기를 똑똑히 새겨야 한다.

배 금 희

날강도무리의 후안무치한 《증거》타령

일본이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해나서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과거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유엔녀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부정해나섰다.

일본에서 《위안부의 강제련행을 립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본당국은 《전면적인 진상조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군과 정부기관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련행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야말로 섬나라 족속의 속된 근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타령이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로 말하면 이미 력사의 엄연한 사실로 명명백백하게 확증되고 전세계의 저주와 지탄을 받고있는 특대형반인륜죄악이다.

일제가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삼은 극악무도한 죄악을 립증하는 자료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1990년대에 전시수상 도죠의 승인밑에 군부와 정부가 성노예범죄를 직접 조직하였다는 사실자료들이 적지 않게 공개되였다. 지어 패망까지 성노예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였다.

일본방위성문서고에서 드러난 비밀문서들에는 침략전쟁당시 정부가 각 부대들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다가 운영할데 대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성노예강제련행책임자의 한사람이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위안부》만도 1 0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딸그대로 《제로해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한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련행은 당시 일본로무보국회가 담당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야마구찌현로무보국회 책임자로 조선인《위안부》들을 강제련행하여가는노릇을 했다고 실토하였다. 그의 증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녀성전원을 길가에 끌어냈다. 도망치면 목검으로 때려눕힌 다음 트럭에 실었다.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곤 하였다. 이렇게 모은 녀성들을 화물렬차와 배에 짐짝처럼 실어 서부군사령부에 보냈다.》

미국 존즈 홉킨스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가 공개한 문서자료도 있다. 1945년 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으로 련합군총사령부가 작성한 《일본군위문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는 《엄격한 규률하에서의 위안소설치는 일본주둔군이 모든 지역에서 군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져있다.

몇해전 일본의 대표적인 력사연구단체인 《력사학연구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군의 관여하에 강제련행된 위안부들이 존재한것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랍치형태의 강제련행사실이 밝혀졌고 《조선반도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모든 사실은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일본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집단적강간행위로서 력사상 류례없는 녀성인권유린범죄,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여 채택된 권고와 결의안들, 세계 곳곳에 련이어 세워지고있는 성노예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을 신랄히 폭로하고있다.

력사에 녀성들을 전장에 끌고다니는것을 정책화하고 그들의 생명과 정조를 무참히 유린침해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뻔뻔스럽게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며 성노예의 강제련행증거가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는것은 도덕적저렬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문제는 현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단순히 력사부정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리면에는 과거패망에 대한 지독한 앙심과 재침의 뼈저린 갈망이 있다.

지금 일본의 정치풍토는 군국화, 우경화에 극도로 찌들어있다. 침략과 살륙,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섬나라 오랑캐의 유전자는 더욱 사납게 변이되여 오늘날 일본반동들에게 옮겨졌다.

하지만 사무라이후예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에 주어진 사죄와 배상의 숙명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 과거의 죄악을 부정하면서 재침소동에 광분할수록 치레질것은 쓰디쓴 패배와 파멸뿐이다.

리 철 혁

총련애국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갈 사명과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자

총련 녀성동맹 본부위원장회의 진행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본부위원장회의가 4일과 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각지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허종만의장이 말단하였다.

의장은 우리 나라에서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고 주체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속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의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총련도 그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녀성동맹이 총련애국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갈 사명과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동포중시, 청년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를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해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성동맹사업의 전환은 본부위원장들을 비롯한 녀성동맹일군들의 사상전환, 사업전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면서 그는 고생꿀에 락이 오고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날이 멀지 않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올해 애족애국운동에 용약 떨쳐나서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강추련위원장이 2016년도 녀성동맹사업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을 강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해》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고수발전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선전교양사업과 민족문화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며 3대애국과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절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 제시된 5대과업관철을 위한 일대진격전을 통해 녀성동맹사업의 새력사를 창조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본부위원장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직건설사업과 자녀사업, 선전, 문화사업들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진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스위스와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여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하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밤하늘가에 새겨진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은 조선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존엄높은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새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광명성-4》호는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리용될것이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조선이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위성을 발사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권리이다.

누구도 조선의 이 권리행사를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의 위성발사가 《미싸일시험》이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우리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인 발사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 *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조선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의 위대한 승리이며 획기적인 사변이다.

또한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고있으며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이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시비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영웅적인 조선인민에게 경의를 드린다.

조선의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안겨주는 사변이다.

《광명성-4》호에 영광을!

주체사상 만세!

인민조선 만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인디아, 만마인사 담화 발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여 인디아, 만마인사가 7일과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인디아인민당 교위지도자인 델리연구그루빠 위원장 비제이 쥴리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조선로동당과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위성발사는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는 조선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친선적인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조선의 막강한 기술적진보에 대한 리해를 보다 깊이하는 기회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였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민 룬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앞두고 성공적으로 발사된 조선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과학기술발전으로 광명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슬기롭고 근면한 조선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재부이다.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위력한 우주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위성은 우주공간으로 계속 날아오를것이다.

조선인민은 과학과 기술을 최상의 경지에로 올려세워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의 체험

브라질신문 미국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 게재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1월 20일부가 《조선을 방문하면서 본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평양시전경을 찍은 사진과 함께 《미국기자가 조선을 방문하고 서방언론이 피뜨리는 외곡된 사실들을 수정, 서방을 놀래울 신화들과 진실, 사진들을 밝히다.》라는 해설글을 달았다.

방문기는 조선인민의 미국인들에 대한 감정, 단정한 옷차림, 다종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성 등에서 느낀 소감을 피력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오래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조선전쟁의 피해는 물론 아직까지도 전쟁상태에서 살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조선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을 훌륭히 해내고있다. 무료교육에서 이룩한 성과들, 집없는 사람이 없는것, 존엄높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등은 조선의 모습을 더욱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확실히 서방과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

조선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특히 대국들의 위협속에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다.

조선이 미국땅을 타고앉으려고 매해 미국의 해안가에서 전쟁연습을 한다고 가상해보자.

그러면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조선사람들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리비아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선군정치와 핵억제력이 있기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다고 확신하고있다.

명백히 말하여 조선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것과 조선에서의 체험이 완전히 다른데 대하여 놀라와하고있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국방력강화노력

로씨아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중부군관구가 12차례의 지휘참모훈련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약 100대의 현대적인 땅크와 30대이상의 무인기를 비롯하여 1 200대이상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받게 된다. 또한 남부군관구에 20대의 다목적전투기와 5대의 현대화된 습격기를 비롯하여 50여대의 최신항공기술기재들이 납입되게 된다고 한다.

물공급문제해결노력

페니아에서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일 이 나라 정부는 앞으로 15년동안에 물공급사업을 개선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나라에서는 물을 공급받는 주민수가 인구의 5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년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브라질에서 소년로동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월 29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2014년에 전국적으로 소년로동자수가 2004년에 비해 43% 줄어들었다.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힘든 로동을 강요하는 현상에 대한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승용차생산

군사력강화에로 나아가는 이란

이란은 중동의 주요군사강국으로 평가되고있다. 군사적면에서 볼 때 이란은 적지 않은 전략무기들을 보유하고있으며 정예화된 무장력을 가지고있다. 이에 의거하여 이란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해나가고있다.

이란에 있어서 군사력강화는 가장 중시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란은 풍부한 원유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중동의 전략적요충지에 자리잡고있다. 이 나라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페르샤만지역에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까타르, 바레인, 아랍추장국련방 등의 나라들이 있으며 방대한 량의 원유가 매장되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대한 지배주의정책을 추구해왔다. 1979년 친미반동정부인 파흐라비정권이 거꾸러진 후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미국은 이란이슬람교혁명을 교살하고 이 나라의 반미자주적인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이 나라와 린접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미국의 침략을 받고 황폐화되였다. 강한 군사력이 아니였더라면 이란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운명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최근년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침략책동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이른바 이란핵문제를 조작해낸 미국은 그를 구실로 서방세계를 사촉하여 경제제재를 계속 실시하고있다. 지난해 핵합의가 이룩된 후에도 이란의 미싸일개발을 걸고들며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어코 이 나라를 뒤집어엎으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본을 따 령토팽창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이스라엘의 책동도 이란이 군사력강화를 소홀히 할수 없게 하는 리유로 된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주의정책을 앞장에서 거들어주고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각방으로 못되게 놀아댔다. 지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위협공갈을 일삼고 국제적인 반이란공조체계를 추구하였다.

이란이 강해지는것은 중동지배를 추구하고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다. 지역에서 저들의 지배체제를 세우기 위해 중동의 강경보루인 이란을 제거하자는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통된 심리이며 목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여 지역내에서 《제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침략자들의 강도적궤변에 불과하다.

정치, 경제, 군사 각 방면에서 감행되는 그들의 고립압살과 침략책동은 이란인들의 반미, 반이스라엘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있으며 군사력강화를 한시도 늦출수 없게 하고있다.

중동지역에 조성되고있는 엄혹한 정세는 이란으로 하여금 군사력강화에 더 큰 힘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테로조직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있으며 리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고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알륵과 갈등이 지역내 나라들사이의 관계문제로 표면화되고있으며 대국들의 세력권다툼이 우심해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란이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적들의 침략책동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여러가지 신형무기들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규모군사훈련들을 벌리는 등 군사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의 남부수역에서는 《벨라야트-94》로 명명된 대규모해군연습이 개시되였다. 연습 첫날 가상적이 이란령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폐쇄정과 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국산제함정들과 륙전대들이 배비되였다. 또한 미싸일발사대들과 해안포, 전자전체계들이 전개되였다. 이란해군은 연습과정에 공중과 해상의 대상물들을 동시에 추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레이다체계에 대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체계는 전자전에 적합하며 이란해군은 이 레이다기술을 토대로 레이다망을 형성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이 미싸일개발과 련관된 이란의 회사들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그 무엇도 이란의 국방력발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란정부는 나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싸일개발을 더욱 다그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은 국영TV방송을 통하여 정밀유도미싸일들이 들어있는 새로운 지하미싸일저장시설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강화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이 가뜩이나 이란을 아니꼽게 보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는 달갑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군사력강화를 생명으로 삼고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워나가는 한 적들의 침략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본사기자

지진피해 확대

대만 남부 고웅시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6.7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5명이 죽고 30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7층짜리 아빠트를 포함한 8채의 건물이 파괴되였다. 진앙은 북위 22.94°, 동경 120.54°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한편 대만 남부 고웅시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8일현재 사망자수는 37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수는 460명이상에 달하였으며 100여명이 건물잔해속에 묻혀있다고 한다.

화산 분출

인도네시아의 북부쑬라웨씨주에서 7일 소푸탄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여러차례 분출하면서 화산재가 2 500m높이까지 뿜어져올랐다 한다.

분화구로부터 반경 4km안의 지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지카비루스 감염증환자 발생

타이에서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가 발생하였다.

2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데 의하면 22살 난 남성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한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023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